

■ 그림 여행



폭풍우 (The Tempest c.1508)

조르조네 (Giorgione 1470's - 1510)
(캔버스에 유채 83 cm x 73 cm 베니스 아카데미아 미술관)

15세기 베니스에서 활동했던 이탈리아 화가 조르조네는 르네상스의 절정기에 베니스 파 화풍을 일으켰던 화가이다. 뚜렷한 선이나 입체적인 묘사보다 부드러운 색채와 신비한 분위기로 시적인 화면을 창조했던 천재 화가였다. 그의 명성이나 재능에 비해 너무 짧았던 그의 생애 때문에 오늘날 그가 그렸다고 확인된 그림은 여섯 점밖에 남아 있지 않다. ‘폭풍우’라고 제목 붙여진 이 그림은 그 중 대표적인 작품이다.

어딘지 모를 숲속 골짜기에 강이 흐르고 저 멀리 하얀 건물들과 다리, 그리고 그 너머에는 폭풍의 예감을 머금은 청회색 하늘이 펼쳐져 있다. 폭풍우가

닥치기 전 고요한 순간을 그린 듯, 하늘에는 번개가 번쩍이며 어둡한 세상 위에 빛을 비춘다. 화면의 앞쪽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일까? 왼쪽에는 군인 복장을 한 젊은 남자가 비스듬히 서 있고, 오른쪽에는 아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나체의 여인이 앉아 있다. 그림의 양옆에 배치되어 있지만 두 인물 간의 관계는 분명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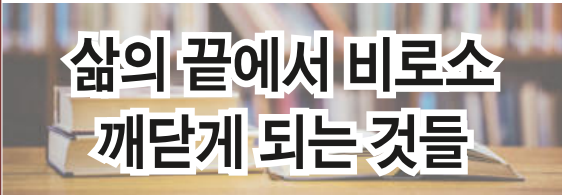
이 그림이 자연과 문명, 남성과 여성 간의 대비를 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연과 문명, 인간이 한데 어우러져 거대한 교향곡을 이루고 있는 서양 미술사 최초의 본격적인 풍경화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배경으로만 등장하던 풍경이 소재이자 주제이고, 그림 속의 줄거리나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재된 분위기 자체가 그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조르조네는 외모도 수려하고, 뛰어난 음악적 소양과 함께 천재적인 미술 재능을 타고 났던 르네상스형 예술가였다. 동시대의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도 밀접하게 교류했으며 비슷한 작품 세계를 이루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 창궐하던 흑사병에 걸려 36세경에 죽고 만다. 너무나 이른 죽음으로 그의 작품활동은 끝났지만, 그가 후대 화가들에게 남긴 영향력은 막강하다. 그가 죽은 후에도 티탄(Titian) 등 그의 뒤를 이은 베니스 파 화가들의 그림 속에 조르조네의 정신과 스타일은 면면히 살아 흘렀다.

어느 한곳도 막힘없이 유려하게 시선이 흐르며, 오직 한줄기 번개만이 움직임의 전부인 고요한 목가적 풍경. 이미지와 분위기로 모든 것을 보여준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창조했던 화가의 재능과 삶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이없이 끝나 버렸다. 탄식하는 2020년의 7월이다.

《김동백》

■ 신간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은 삶을 마쳤거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남긴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아무리 큰 불행도 죽음에 비하면 사소하다. 내가 오늘 밤 12시에 삶이 다한다고 상상해 보자. (중략) 예전처럼 누릴 수 없는 소소한 일상이 사무치게 그리워질 것이다. (인터넷교보문고의 ‘책소개’ 중에서)

■ 정재영 지음 | 센시오 펴냄 | 280쪽



NEWSONG STUDIO

실용음악전문학원

714.614.1383

기타 / 드럼 / 보컬 / 피아노 / 베이스 / 건반 / 색소폰

레코딩 / 유튜브 콘텐츠 제작 / 영상편집 / 미디어 / 믹싱



NewsongStudioOC@gmail.com

7050 Village Dr. #i-2 Buena Park, California 90621